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콜로키움 요지

### 제1차 콜로키움

제 목 : 소득분배의 이론

발 표 :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일 시 : 1989년 9월 22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02-307)

### 제2차 콜로키움

제 목 : 푸고와 하버마스의 논쟁

발 표 : 김현 교수(서울대 불문학과)

일 시 : 1989년 10월 20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 (02-307)

### 제3차 콜로키움

제 목 : 마르크스의 자본론 연구

발 표 : 김수행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일 시 : 1989년 11월 17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 (02-307)

### 제4차 콜로키움

제 목 : 신유학 사상의 자연 이해

발 표 : 김영식 교수(서울대 화학과)

일 시 : 1989년 12월 15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 (02-307)

### 제5차 콜로키움

제 목 : 정보산업 사회의 공학적 모습과 그 사회적 영향

발 표 : 이충옹 교수(서울대 전자공학과)

일 시 : 1990년 4월 6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02-307)

현대의 정보산업 사회를 공학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정보산업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오던 정보과학 기술이 현대, 특히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창출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아날로그 체계를 위주로 청각·시각 정보의 전달과 처리 기술에 국한되어 있던 정보산업 기술은 근래에 들어 디지털 체계의 기반 위에서 다른 물리적 신호뿐만 아니라 화학적 신호의 영역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는 정보량의 다양화와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며, 이는 다시 기존의 여러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빠른 속도의 일 처리 혹은 다양하고 많은 양의 정보 종합을 통한 일상 생활 속에서의 판단 수행 등이 요구되고 있어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의 평가 기준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우리의 삶의 양식보다 빠르게 우리의 일상 생활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견해 역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 때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사실은 과학적 지식의 증가가 그 자체로서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인류가 20세기 중반부터 이룩해 놓은 정보산업 기술이 바람직한 사회상과 조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 역시 다각적 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 제6차 콜로키움

제 목 :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발 표 : 이성규 교수(서울대 동양사학과)

일 시 : 1990년 5월 11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02-307)

이 발표는 「고대 대동사상의 연구」라는 책에 기초한다. 이 저서는 진정영·임기담에 의한 중국 최초의 대동사상에 관한 통시적 연구서이다. 그들은 대동사상 즉 유토피아 사상으로 유가적·도가적 견해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유토피아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기존의 군주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물론 예외적으로 군주가 없는 가유적 질서를 추구하는 무정부주의적 입장도 있다.) 이 때 요구되는 군주는 민에게 봉사하면서 특권을 누리지 않는 선군이다. 즉 군주의 도덕적 자각을 중시하고 있다. 둘째, 지위와 신분에 따른 차등적 분배를 주장한다. 여기서 분배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이다. 따라서 토지개혁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셋째, 생산력 증대를 통한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욕구 절제를 통해서 소비를 억제하여 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유토피아 모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모형은 불우한 처지에 있던 지식인에 의해 제시됨으로써 현실도피적이며, 적극적 개혁 의지보다는 고발의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 또 그들이 제시하는 이상사회는 지식인 주도의 엘리트 사회로 설정되고 있다. 둘째, 민이 절대적 빈곤 및 사회적 참여 배제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욕구 절제의 도덕적 자각이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도덕적 자각은 군주와 지배 관리에 대해서 요구되는 것이었다. 동시에 강제성은 배

제되었다. 셋째, 토지개혁 문제를 지주와의 타협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으므로 비현실적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이상적 모형이 소규모 향촌의 규모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중국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전통적 대동사상의 정리를 통해서 중국적 공산주의 사회를 향한 이상적 모형을 창출하고자 한다.

## 제7차 콜로키움

제 목 : Marx 경제학과 가치론

발 표 :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일 시 : 1990년 6월 8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5동 공동회의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하는 정통 경제학과는 달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적 관계들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 다시 말하자면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풍부한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주요 관심사로 삼는다.

실증주의에 기반한 정통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가치가 곧 가격이다. 정통 경제학자들이 가치를 가격과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반면,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현상적 교환 가치에 불과하며, 교환 가치의 실제적 형성은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품의 가치는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만들어 내는 데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노동가치설의 입장을 마르크스 경제학은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노동가치설을 분해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진다. 간략히 살펴본다면, 다양한 몇 개의 상품군(群)에서 어느 특정 상품의 가격을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거하여 설정한 후

그 가격을 다시 가치로 환산하게 될 경우 애초의 가격설정 근거가 되었던 가치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비록 그 상품군에서의 가치의 총합과 가격의 총합은 동일하지만, 하나의 상품에서는 가치로 환산된 가격과 본래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간 사이의 관계 중에서 특히 착취를 설명하기 위하여 채택된 노동가치설은, 그러나 수학적 분석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착취는 비단 노동가치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가치설을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 자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에서 나타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여러 관계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 제8차 콜로키움

제 목 : 양자역학의 존재론적 함축

발 표 : 조인래 박사(서울대 강사)

일 시 : 1990년 7월 6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02-307)

이번 발표의 주제는 전통적 고전역학과 상치되는 양자역학에서 입자 스픈(spin)의 규정 불가능성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EPR 논증을 검토하여 그것이 지닌 존재론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고전역학에서는 한 물체를 위치와 운동량이라는 고정 함수로써 완벽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반하여 양자역학에서는 그 물리적 대상이 상대적 벡터들로 표시되어 불연속적인 양을 갖는다. 한 입자의 스픈을 측정할 때에 정식화한 표기에서,

$$|\psi_{\text{spin}}\rangle = \frac{1}{\sqrt{2}} (|S_{z(1)} + \rangle |S_{z(2)} - \rangle - |S_{z(1)} - \rangle |S_{z(2)} + \rangle),$$

고전역학에서는 중첩 상태에 있는 스피n이 실제로 어느 한쪽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관찰하지 못한다는 해석을 내리지만, 양자역학에서 스피n 자체는 어느 상태에도 있지 않는데 단지 우리가 관찰하면 어느 한쪽으로 드러나므로 그 어느 쪽으로도 규정지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 보어 등의 양자역학적 견해에 1935년 아인슈타인 · 포돌스키 · 로젠은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한다. 그들은 시점 t에 입자 1의 스피n을 측정한 결과가  $+/\sqrt{2}\hbar$  라 했을 때, a) Strict Anti-correlation Assumption: z 방향과 x 방향의 두 입자는 반대 방향이다 ; b) Locality Assumption: 두 물리계의 측정은 각각의 그것에만 제한된다 ; c) Reality Criterion: 어떤 가(可)관측량의 예측이 곧 물리적 실재의 존재를 의미한다 ; d) Completeness Criterion: (c)의 이론에로의 확대의 논증을 통하여 상태 벡터  $|\psi_S\rangle$  에 의해 주어지는 개별 물리계에 대한 양자역학적 기술은 불완전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그리고 이 논증은 결국 확률적 국소성(Stochastic Locality: 문제는 측정 결과의 값이 아닌 확률)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양자역학의 비분리성을 존재론적으로 수용하자는 아인슈타인의 제안, 즉 특정한 측정이 행해지지 않는 한 두 물리 대상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복합된 상태에 속하고 독립적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이렇게 될 때 양자역학의 비분리성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 제9차 콜로키움

제 목 : 뇌 기능의 신경생리학

발 표 : 서유현 교수(서울대 의대)

일 시 : 1990년 9월 14일(금) 오후 4:30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02-307)

18세기 이전에는 모든 학문이 아직 여러 분야로 나뉘지 않은 채였으나, 19세기에 들어와 제학문의 분과 현상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현대에는 다시 통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제 모든 학문은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신경생리학은 철학·심리학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경생리학의 발달사를 보면, 16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생각(thinking)은 마음(heart)에서 나온다고 여겼다. 그러나 1637년 데카르트 시대 이후 해부학이라는 분야가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1891년에는 새로운 염색법의 개발로 신경세포를 최초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신경 조직도 망상체가 아닌 세포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져 각 신경세포들 사이의 간격을 어떤 화학 물질이 메꾸어 준다는 이른바 전기 학설을 증명하려는 쪽으로 연구가 기울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의 실제적 증명은 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1921년 베일 박사는 개구리의 심장과 링그액을 이용하여 화학 물질의 신경세포 매개체 역할을 증명하는 실험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신경생리학은 저 우주 개발과 더불어 현대의 최첨단 학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 신경생리학이 공헌할 수 있는 분야들 중 하나가 정신분열증이다. 정신분열증은 신경세포의 수용체(특히 토파민 수용체)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을 경우 발생하는 질환이다. 또 신경안정제나 마약 등도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의 수용체에 부착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신경생리학 연구의 현대적 경향은 그것들을 낱낱이 조사하려는 분석적 연구보다는 신경세포가 형성되는 유전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단순한 네 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유전자의 DNA, 아미노산의 단백질 합성 등을 연구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노망’ 등의 질병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최근에는 PET라는 첨단 기기를 사용하여 뇌의 기능을 영상화하려는 시도가 관심의 대상이며, 신경생리학은 신경세포의 이상으로 생긴 병들, 또 불치라고 불리는 AIDS 등

의 치료에 주력하고 있다.

## 제10차 콜로키움

제 목 : 조선 유교의 사회사

발 표 : 이태진 교수(서울대 국사학과)

일 시 : 1990년 10월 19일(금) 오후 3:00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02-307)

특별히 조선 유교 사회사를 연구의 주제로 삼은 목적은 이제까지의 조선 유교 및 양반정치(당쟁)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 평가를 재검토하기 위해서이다. 조선왕조 사회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적 체제이며, 우리가 다루게 될 정치적·경제적 측면은 바로 이 구조를 지탱하고자 하는 지배 계층과 이견을 가진 다른 계층간의 알력과 조정이 그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 주제를 세분화한다면, 그것은 향도와 향약, 농업 기술의 발달, 정치사의 단계적 발전이다.

1) 향도와 향약은 이를테면 일반 농민과 토족의 상호 관계이다. 고려 시대 대규모성을 띠던 향도는 고려말부터 촌락 단위로 소규모화하였으며, 조선 초기·중기에는 집권관료제를 통해 지배되었고, 후기에 와서는 그 독자성이 증대하여 두레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고려 시대에는 휴한법의 원칙만이 있던 농업 기술은 고려말부터 연작상경화·집약화가 시작되었고, 인구도 증가하였다. 15세기 조선 초에는 「농사직설」 등의 연구서와 밭농사 등에 진전이 있었으며, 중기까지만 해도 향촌 지주나 중앙 권세가 등에 의해 점유되던 농지가 후기에 들어와서는 자영농이 확대되는 등 양상이 변했으며, 이앙법이 보급되고 고도의 집약화가 이루어졌다.

3) 15세기의 전환기에는 전환기에 맞게끔 리더쉽을 강조하는 중앙집권 관료제이던 구조가 16·17세기에는 향촌 지주층의 공치주의가 대두

함으로써 붕당 정치로 변화했고, 18세기의 탕평정치 때에는 향촌 지주와 상업 자본가로 지배층이 이원화하였다. 이 때의 유교는 왕권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여 새로운 군신 관계를 정립하려 했으나, 19세기 세도정치 때에는 관(官)과 상(商)이 극도로 밀착하여 거의 유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주제들을 살펴보았던바, 다음의 한계와 전망으로 끝맺고자 한다. 먼저 각 시대 향교의 사회적 기능 및 존재 형태에 대한 구체적 파악이 필요하고, 17세기 이후 유교적 질서의 새로운 변동의 배경 이해를 위해 상공업사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추구를 사상 및 철학적 논제들과 연계시켜야 하겠다.

### 제11차 콜로키움

제 목 : 동구 및 서구 개혁과 경제 민주화

발 표 : 권기홍 교수(영남대 경제학과)

일 시 : 1990년 11월 9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02-307)

이 발표 내용은 지금까지의 사회주의 경제가 나타냈던 문제점 탓에 발생한 동구의 경제 개혁과 이에 비교되는 서구의 그것을 살펴보면서 각 모델들의 장단점을 뽑아내어 우리의 향후 경제제도 변화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먼저 소위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운동의 이론적 의의를 보기로 하자.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제 민주화가 저지른 여러 시행착오를 수정하려는 시도로서 인식된다. 이 경제 민주화란 생산 관계의 사회화, 즉 노동통제 과정에의 노동자 참여를 확대함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실현 가능성을 도외시한 당위적 사회주의 이념 그 자체만을 고집하는데 비해 이제는 그것의 구체적 실현방식 제시를 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산 관계에서도 그것의 상부구조적 차원에서의 사회화, 즉 소유 규

범이나 기업 규범에서만 사회화가 이뤄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민주화를 담보하는 것도 생산력의 지속적 발전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사회주의는 생산력의 현실적 제약 조건, 자본가와 노동자의 모순보다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라는 기본적 모순을 간과했으며, 생산력의 외연적 발전에서 내포적 발전으로 이행할 때에는 그 물적 자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외시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이런 기본적 문제 의식을 가지고 동구 사회는 경제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중 헝가리·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를 보겠다. 헝가리는 시장 사회주의라는 명칭으로 불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시장 개념은 적극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소유 개념은 국가의 많은 통제를 받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아는 자주 관리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 체제인데, 노동자 전체가 참여하는 평의회를 조직하여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델보다는 오타 시크(Ota Sik)라는 사람이 주창한 자본중립화 모델을 살펴야겠다. 이는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의 모델을 장점 위주로 종합하려 한 모델이다. 여기서는 국가의 관리 위주의 통제가 있는 반면, 임금이라는 카테고리도 생산력 증대를 위한 동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다음에 서구의 경제민주화 모델을 보자. 먼저 독일에서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은 그 이사회를 노동자와 자본가 반반의 비율로 구성된 감사회를 선출하여 비물질적 차원에서의 노동자 참여를 넓혀 놓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1983년 이후로 역시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은 그 이익의 20%를 현찰로 노동자 기금에 납부하고, 노조는 이 기금으로 각 기업체의 주식을 40%까지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물질적 차원의 노동자 참여가 스웨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현재 개혁을 보고서 혹시 잘못 가질 수 있는 여타의 비난이나 과신을 방지하는 것이며, 아울러 우리의 경제 변화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성격을 지양하여 새로운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제12차 콜로키움

제 목 : 중국철학계의 동향

발 표 : 송영배, 이남영 교수(서울대 철학과)

일 시 : 1990년 12월 14일(금) 오후 6시

장 소 : 이조(강남구 논현동)

### 1. 송영배 교수의 연변대학 및 북경대학 방문

일시: 1990년 10월 15일~11월 9일

방문 내용 : 연변대학 내 조선문제 연구소의 초청으로 강연회를 가졌으며, 북경대학 내 조선문화 연구소에서 학술 교류에 대한 협의를 가짐.

철학계 동향 : 연변대학 조선문제 연구소는 전통적 조선철학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아직도 북한과 밀착된 면을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 한국 학자의 방문 등으로(율곡학회 등) 주체사상 비판에 대한 논의도 일고 있다.

북경대학 조선문화 연구소는 한국의 여러 문화를 연구하는 점에서 연변대학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비록 서경덕·이이 등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지만 한국철학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 2. 이남영 교수의 주자 탄생 850주년 기념대회 참석

일시: 1990년 10월 18일~10월 25일

방문 내용: 주자 탄생지인 복건성 방문과 논문 발표

학회 동향 : 주자에 대한 주관적 관념론과 객관적 관념론 해석의 갈등은 여전하였으며, 주자 연구의 분과학적 연구 분위기도 대두되었다. 그리고 문화혁명 기간에 있었던 공백기 등의 탓인지 한국의 주자 연구 업적과의 교류를 희망하는 현상도 볼 수 있었다.

### 제13차 콜로키움

제 목 :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 데리다의 철학 –

발 표 : 이성원 교수(서울대 영문학과)

일 시 : 1991년 3월 29일(금) 오후 4시 30분

장 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세미나실

해체(deconstruction)는 -ism으로 라기보다는 사유·비판 등과 같은 일반 어휘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른 이해라 할 수 있다. 데리다(Derrida)에 의해 제시된 이 용어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를 탐구하는 철학적 전통에서 잉태되었으므로 이를 떠나서는 그 의미가 왜곡되기 쉽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영미 철학계와 문학계에서 큰 저항을 받았다. 이는 내용의 추상성과 난삽함 외에도 기존의 사유 체계를 파괴하려는 특징 때문이다.

데리다는 지각의 모든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 기록(écriture)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 원초적 기록은 현상적 의미에서의 쓰는 행위가 아니며, 존재의 체험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지각 속의 흔적과도 다르며, 지각의 모든 체험을 의미있게 하는, 자신을 감춤으로써 자신을 알리는 영역이라 불리는 이 기록이란 무엇인가?

이는 차이의 절대적 부재로부터 벗어나 의미의 관계 속에 자리잡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차이의 체계이다. 이를 위해 그는 차이(差異; different)가 아닌 차이(差移; différence)라는 번역곤란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① 발음이 아니라 써야 구별되는 기록의 중요성과 ② 능동적·수동적 측면 모두를 강조하는(-ance) 중립적 입장을 드러낸다.

그는 말해지는 언어가 기록을 위한 문자에 선행한다는 역사적 통념을 전도시켜, 말하는 것도 기록이 선행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의 기록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원초적 기록이다. 이 기록은 현상적 기

록이 아님은 물론 흄(Hume)적인 마음속의 각인 현상과도 다르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후설(E. Husserl) 비판에서 시작한다. 후설은 칸트(I. Kant) 철학의 근본 개념인 선협적 범주(Kategorie)를 부정하고, 스스로에게 자명해지는, 존재에 근원을 주는 것은 경험적 현상계의 존재도 아니고 초월적 존재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오직 의식을 통한 자기 자신의 응시에서 자기 존재의 자명성을 찾는다. 이 의식의 자유 그 자체인 초월적 주체(transzendentale Subjekt)는 주체와 의식 대상의 완전한 일치를 위한 매개 과정의 불투명성에 의해 의심될 수 있다. 메를로-პonty(Merleau-Ponty) 등은 육체(corpse)가 매개자이며, 이 육체의 불투명성으로부터 완전한 자기 인식의 불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데리다는 어떤 매개체에도 의존하지 않는 순수한 사유에의 갈망을 서구 철학을 관통하는 욕망으로 규정짓고, 의식의 자명성, 주체의 자기동일성 등으로 나타나는 이 욕구가 의식과 목소리를 동일시하였다고 주장한다. 목소리는 의식 행위의 기본으로 의미(자기반성적 사유에 의해 인지될 수 있는,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언어 이전의 상태)와 밀착되어 있으며, 의식 그 자체로 간주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명한 언어는 인간에게 영원한 유혹이었고, 그 유혹이 체계를 이루어 플라톤(Platon) 아래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에 이르기까지 이성중심주의(logocentrism)-음성중심주의(phonoctratism)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래 형이상학은 목소리와 존재, 존재의 의미, 의미의 관념성과의 절대적 인접성을 특징으로 한다.

자기반성적 사유를 통해 완전히 알 수 있다는 모든 형태의 self-reflection을 비판하는 것이 데리다 해체주의의 핵심이다. 플라톤을 모델로 한 현상학은 이에 입각해 있다. 철학은 결단을 내림으로써 철학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결단이란 어떤 다른 것의 제거를 전제로 한다. 내려진 결단에 집착함으로써 내재적 모순은 쉽게 교정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철학은 모순의 다른 이름이 되고 만다. 후설은 기호를 통한 재현 행위에 대해 언급하는데, 우선 이는 반복되는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후설은 기호를

① 관념이 자리잡는 형태로서의 표상 ② 동일한 관념이 재생 반복되는 가능성으로서의 재현 ③ 의미·관념을 대체하는 역할로 특징짓고 ①의 표상 작용을 중심으로 관념을 언어 이전의 차원으로 승격시킨다. 이에 반해 데리다는 ‘표상’ 자체에도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함에 주목하여, 의식·목소리에서 기호를 제거한 후설과는 반대로 재생을 위한 반복 가능성을 밑받침해 주는 기호를 원초적 위치로 옮겨놓는다. 즉 표상이 재현 가능한 것이라면, 그 이전에 원초적 기호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호의 일차성을 애초에 거부하는 존재의 형이상학에서 비롯되는 기존 기호의 속성들을 제거하면서 데리다는 *différance*라는 의미생성 가능성으로서의 능동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 *transzental*한 차원의 차이 체계로서의 *écriture*는 현상적 행위에로까지 연결된다.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은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동일한 문제 의식 아래 여러 다른 text를 해석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철학 자체의 해체로까지 계속된다. 이는 극도로 엄밀하고 내면적 방식으로 철학의 계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며, 종래 철학의 어떤 개념에 의해서도 정의 설명될 수 없는 지점으로부터 철학사에 의해 억압됨으로써 은폐 금지되어 포용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개진하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해체 행위는 과정 자체일 뿐이고 기존 형이상학을 벗어나 새로운 무엇인가를 정초시키는 것이 아니다. 해체(Deconstruction)는 하나의 -ism이 될 수 없고 *destruct*와도 엄격히 구별된다. 해체주의는 단순한 비판일 뿐이라는 반론에 대해서 데리다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철학이 Construction의 부정인 Deconstruction이기 때문이다. 이는 text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규정된 self-evidence를 거부한다.

사유 행위로서의 Deconstruction은 유효하되 Deconstructionism은 불필요하다.

참고 : 영미 문학 비평으로서의 Deconstructive Criticism은 데리다의 Deconstruction을 보다 엄밀한 구조 분석의 의미로 편의적으로 수용

함으로써 오히려 규정적 측면으로 치우치고 말았다.

### 제14차 콜로키움

제 목 : 경제학의 흐름 - 화폐수량설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

발 표 : 정운찬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일 시 : 1991년 4월 26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02-307)

1. “Economics is what economists do.” (J. Viner)

“Economics is the science of choice.” (majority view)

“... most agreeable branch of the moral sciences, in which theory and fact, intuitive imagination and practical judgement, are blended in a manner comfortable to the human intellect.” (J. M. Keynes)

2. 경제학자와 정치철학자의 사상은 그것이 옳을 때나 옳지 않을 때나 모두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참으로 소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누구의 지적 영향도 받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실제적 사람들도 이미 세상을 떠난 어떤 경제학자의 정신적 노예임이 보통이다. 허공에서 어떤 목소리를 듣는다는 광적 세도가도 그 광기의 원천을 캐보면 수년 전의 어떤 엉터리 학자인 게 보통이다.(J. M. Keynes)

3. 경제학설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의있는 일일 뿐 아니라 현대 경제이론을 이해하는 데도 크게 도움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경제 이론이 ‘모형의 구성→추론→검증→모형의 개선→추론→검증’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진리에 수렴하는 학문이라면, 현대 경제학을 공부할 때 과거의 경제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과거의 이론은 검증을 통하여 반증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행이 지난 경제학의 사조라 할지라도 다른 사조

에 의해 결정적으로 대체되지는 않으며, 잊혀졌던 경제 이론이 그 후의 경제 이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혹은 부활하여 경제학계를 지배하기도 한다.

4. 과거의 유행이 지나가고 다른 이론에 의해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경제학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사상의 예로서 중세의 공정가격론과 근세 초두의 중상주의가 있다.

### 5. 중상주의 3 유형

- 1) 가장 통속적인 중상주의관
- 2) 금융완화정책
- 3) 재정학적 측면에서의 중상주의

6. 화폐수량설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에 대항하여 편 논리이다.

### 7. 화폐수량설의 전개 과정

- 1) 문제의 제기
- 2) 고전학파의 정통적 화폐수량설

$$MV = PX \quad (X = Q, T, Y)$$

(단, M:통화량, V:화폐의 유통 속도, P:물가 수준, Q:생산량, T:거래량, Y:GNP)

- 3) 손톤(H. Thornton; 1760~1815)
- 4) 은행학파와 통화학파
- 5) 빅셀(K. Wicksell; 1815~1926)
- 6) 하이예크(F. Hayek; 1899~ )
- 7) 케인즈(J. M. Keynes; 1883~1946)

#### (1) 통화개혁론

- (2) 화폐론
- 물가지수에 대하여
  - 기본방정식

$$P = \frac{1}{e} \cdot W + \frac{I - S}{O}$$

(단, W:임금, e:능률의 계수, I:투자, S:저축, O:총생산량)

(3) 일반이론

8) 힙스(J. R. Hicks; 1904~1988)

$$MV = PQ + P_f \cdot P_f$$

(단,  $P_f$  : 금융자산가격,  $P$ : 금융자산수량)

9) 마르크스(K. Marx; 1818~1883)

10) 자본주의의 성숙과 수량설의 한계

11) 신화폐수량설 : 프리드만(M. Friedman; 1912~ )

(1) 화폐 수요 함수로서의 화폐수량설

(2) 화폐 공급의 측면

12) 신화폐수량설 비판

## 제15차 콜로키움

제 목 : 黃帝內經과 漢醫學의 世界

발 표 : 홍원식 교수(경희대 한의대)

일 시 : 1991년 5월 17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02-307)

「황제내경(黃帝內經)」을 서지학적으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황제내경」은 문답 형식으로 저술되었으며, 그 내용 · 문사(文辭) 및 인용된 관명(官名)이나 지명(地名) 등으로 보아 춘추전국 시대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저술되었다고 할 수 있고, 권위의 상징으로서 전설적 현자(傳說的 賢者)인 황제(黃帝)의 이름을 관(冠)한 것으로 본다.

「내경(內經)」은 신석기시대 이래 황하 문명의 일환으로 장구한 의료 경험(醫療經驗)을 총괄했으며, 동양 의학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했다.

2. 「내경」은 전승되는 과정에서 산실(散失) · 탈간(脫簡) · 착간(錯簡)을 면치 못했으므로 역대 주석가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보입(補入) 교

정되어 원형(原型)이 많이 변모되었다고 하겠으나, 「내경」의 기본 내용과 중심 사상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여 현재에도 동양의학 이론에서 주도적 의의를 갖고 있다.

3. 「내경(內經)」은 천인 상응(天人相應)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론이 중심 사상으로 되었으며, 인체(人體)의 유기적 통합을 기본 관념으로 하여 장부(臟腑) 상호간 또는 내장(內臟)과 재외 기관(在外器官)과의 연계성(連繫性)을 강조한 동양 의학의 이론서(理論書)이다.

4. 장부경락학설(臟腑經絡學說)은 동양의학 기초 이론의 핵심이 되며, 장부(臟腑)의 기능에서 5장(五臟)이 모두 상이한 감정을 지배한다는 견해는 심(心)·신(身)의 통일관(統一觀)에 의거한 심신 의학(心身醫學)의 모체(母體)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경락학설(經絡學說)은 인체의 통합체적 연계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표현이 되며, 그 본질을 탐구하여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5. 「내경」에서 음양오행학설(陰陽五行學說)은 인체의 생리(生理)와 병리(病理) 변화를 인식하는 데 이론적 기반이 되며, 동양의학 이론의 주요 구성 부분의 중요성이 인정되었다.

6. 운기학설(運氣學說)은 천시 기후(天時氣候)의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구하는데 그 내용의 난해성으로 인하여 현재는 학자들 사이에도 소외되고 있으나, ‘천인 상응(天人相應)’이라는 동양 의학의 특질에 비추어 이 학설을 실효성있게 연구 개발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내경」은 만고 불역(萬古不易)의 완벽한 의학 이론이 될 수는 없지만, 그 기본 내용과 중심 사상은 현재나 미래에 걸쳐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개발의 보고(寶庫)가 되고 원천(源泉)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제16차 콜로키움

제 목 : 分子生物學과 生命의 起源研究

발 표 : 홍영남 교수(서울대 생물학과)

일 시 : 1991년 6월 14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인문대 교수회의실(02-307)

분자 생물학이란 생물체에서 분자를 분리해 내서 그것이 생물체 안에서 어떤 화학적·물리적 기능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의 구조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밝히고, 그것이 생물체가 행하는 활동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생명의 정의와 생명체의 정의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생명체가 갖는 생명에 대해서만 언급이 가능하다. 생물체는 유기체인가? 생명체와 비생명체의 구별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생명체에서 그것의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은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이런 물음들은 생물학에서 풀리지 않는 중요한 난제들이다. 오늘날엔 이러한 문제들을 DNA와 RNA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DNA와 RNA는 정보 담지자이다. DNA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 RNA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다윈과 혁슬리가 생물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1896년에 프레드릭 뮤셔가 고름이 묻은 붕대에서 DNA의 추출에 성공하였다. 프레드릭 뮤셔는 이 DNA가 유전자의 담지자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으나, 그것이 핵 속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100여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1944년에 에이브리가 쥐의 매끄러운 폐렴균과 쥐의 깔끄러운 폐렴균의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자의 담지자임을 밝혀냈다. 살균을 한 후에도 DNA는 남아 있게 되므로 매끄러운 폐렴균이 병을 유발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로써 DNA가 형질 전환 물질로도 증명이 되었으며, 현미경으로도 관찰됨으로써 생물 물리학과 분자 생물학이 번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논쟁이 종결되지는 않았다. 쥐의 폐렴균 실험에서 DNA 이외에도 단백질이 병을 유발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박테리오파아지의 발견으로 종결되었고, 따라서 핵산이 유전자의 담지자임이 알려지게 되었다.

200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다고 추정된다. 이 중 3/4 시기에 태양계가 생성되었다고 믿어진다. 지구는 그 때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는 오늘날과 같은 산화 상태가 아니라 환원 상태라고 생각된다. 생명의 기원을 말하려면 생명체의 요소를 알아야 하는데, DNA를 살펴보면 질소·탄소 등의 존재를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생명체는 태양계 내에서도 지구 위에서 생존했던 생명체에 국한될 것이다.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서 5탄당 탄소가 아닌 실리콘으로 DNA의 중심 구조가 이루어진 생명체 혹은 태양에서 너무 멀어 수분 아닌 암모니아로 이루어진 생명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DNA의 요소가 되는 그러한 존재들은 대기 상태에서 찾아져야 하므로 이를 원시 대기상태로 규정한다. 여기에 태양 에너지로 인해 이들이 축합될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하고 우연적 축합에 의해 생명체가 탄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나의 세포에서 그 핵 속에 들어있는 DNA는 풀어놓으면 그 길이가 2m에 달한다. 핵의 크기는  $10^{-6}$ m이며, DNA는 그 속에 압축되어 들어 있다. 그것이 풀리게 되면 자기 복제를 하는데, 핵 속에서 빠져나와 고유한 DNA를 지니는 미토콘드리아 속 등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자기 복제를 하는 음란성 RNA와 더부살이하는 RNA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마구 자기 복제를 하는 이기적 RNA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것이 지나쳐 다른 DNA까지도 복제해서 자기 자신이 죽기도 하는데, 결국 이러한 성향은 개체인 인간으로도 이어져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만든다.

원시 지구의 유전정보 담지자는 DNA가 아닌 RNA로 추정된다. 이는 RNA가 DNA보다 여러 기능을 지니기 때문이다. RNA에는 m-RNA·t-RNA·r-RNA가 있는데, 이중 t-RNA는 100여 개 뿐인 데다 완전 3차원 구조로 되어 있어 모양의 다양화가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최초 유전자로 간주된다. 아이겐(Eigen) 교수에 의하면 무기물들이 10억 년을 거쳐 우연히 유기체로 되고 또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로부터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아미노산이 생명체로 될 확률은  $1/10^{130}$  정

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것의 정확한 진행 과정은 단지 추정에 머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러 유전자가 한꺼번에 생성될 수는 없으므로 최초에 몇 개가 생성된 후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이들이 합성되었을 것으로 조건을 만들어 보려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우연적 진행의 결과로서 창발적으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생명체의 세포는 모두 같은 DNA를 갖게 된다. 그런데 핵과 유전자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포들은 Organizer에 의해 환경에 따라 어떤 형질만이 발현되고 다른 형질들은 억제되고 분화가 중단되므로 특수한 기능을 하는 전체 생명체의 한 부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세포들은 계속 서로 communication을 하게 되는데, 이중에서 communication을 거부하고 한 세포가 수정란처럼 단독으로 분열하게 되면 암 세포가 된다. 마지막으로 굳이 말하자면 생물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이고, 생물체의 속성인 생명은 물질대사와 self-control 그리고 역사적 진화를 할 수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 제17차 콜로키움

제 목 : C. G. Jung

발 표 : 이부영 교수(서울대 의대 정신과)

일 시 : 1991년 9월 13일(금) 오후 4시

장 소 : 서울대학교 문화관 국제세미나실

분석심리학은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C. G. Jung(1875~1961)의 심리학설이다.

그 기본적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 학설이 경험심리학이라는 점이다. 자기 자신과 다른 인간 심성과의 만남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성립된 가설이다. 따라서 이 학설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분석심리학은 또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인간심성론 가운데 하나이지만, 어디까지나 실제적 효용성과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 하나의 가설이다. 즉 고통받는 사람의 심리적 문제를 도와주는 정신 치료의 현장에서 이 가설이 어느만큼 효과가 있는가에 따라 검증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심성에 대한 분석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설은 인간은 성숙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한히 갖추고 있는 존재라는 데 있다. 성숙이란 ‘하나’가 됨을 말하고 한 개체의 정신에서의 분열의 지양, 통일의 구현을 말한다.

또한 인간 정신은 “무슨 까닭으로?(warum)”라는 물음에 대응할 수 있는 인과적 측면의 해석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wozu)”라고 물어나가는 목적지향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C. G. Jung의 무의식관, 자기 실현의 과정, 심리학적 유형론과 원형론, 정신 치료자의 태도 등 모든 세부적 설명은 결국 이 두 가지의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고 또한 그리로 귀착된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분열의 실상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으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해 온 무의식적 측면의 정신 세계를 깨달아 나가는 것, ‘의식화(Bewußtwerdung)’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내가 지니고 있는 무의식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 다른 집단에 투사하여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지양하고 이를 자신의 내면에서 찾고 살려서 의식에 동화함으로써 의식의 영역을 넓히고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전체 정신에 접근하는 부단한 정신이다.